

# 사랑스러운 소녀 '유아'는 잠시...성숙하게, '어른'스럽게

신곡 '루프탑', 성숙한 여성미 강조  
 "데뷔 후 처음으로 힐 신고 퍼포먼스"  
 "솔로가수로서 자신감 확인하는 앨범"  
 "롤모델 이효리...무대 위 확신 존경해"

그들 '오마이걸' 유아(28·유시아)가 변했다.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기까지 한다. 눈빛은 강렬해졌고 분위기는 다크하다. 그럼에도 무대 위 유아의 모습은 전혀 어색함이 없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유가 넘친다. 자기 확신에서 오는 애티튜드다.

유아는 첫 솔로 싱글 '보더라인(Borderline)'에서 이미지 변신을 감행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다. 첫 번째 솔로 타이틀 '숲의 아이'에서 신비로운 소녀의 모습을, 두 번째 솔로 타이틀 '셀피시'에서는 당당하고 스타일리시 모습으로 조금씩 변주를 썼다. 이번 타이틀 '루프탑(Rooftop)'에서는 성숙하면서도 여성미가 흐른다.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고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루프탑'에서 표현하는 저는 오마이걸이나 기존 솔로 유아에서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에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솔로 앨범이죠."

'루프탑'은 꿈과 현실의 경계선을 루프탑으로 표현한 곡이다. 꿈을 찾아 비상하고 싶은 마음을 새에 비유했다. 안무와 의상들은 새를 빗댄 것이 많다. 유아의 몽환적인 음색은 중독성 있는 스트링 사운드와 어우러진다. 808 베이스가 두드러진 힙합 댄스 장르는 이제껏 볼 수 없던 유아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처음으로 힐을 신고 퍼포먼스를 해요. 오마이걸로 행사를 다닐 때 샌들 힐 같은 걸 신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얇은 힐을 신고 하거든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담됐는데 무대에서 봤을 때 선이

예쁘게 정리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해서 흔들거리지 않게 했어요. 여성스러운 선과 과격적인 동작, 플로어 리프트 등 퍼포먼스가 있다 보니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특히 비주얼적인 부분에 신경 썼다. 여성미에 집중하며 시크한 매력을 가미하려고 했다. 오랫동안 고수하던 흑발도 버리고 다이아몬드 중점을 뒀다. 덕분에 소녀의 이미지는 걷어지고 한층 세련된 분위기가 완성됐다. "3-4kg 감량했어요. 불살이 많은 편인데 뽀짝하고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불살을 빼기 위해 감량을 많이 해야 했어요. 헬스하게 만들어야 선 아이 메이크업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로 가수 유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마이걸로 데뷔한 지 10년 차가 됐고,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 때다. 유아는 이번 앨범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 "루프탑을 보고 대중이 어떻게 생각해 줄지, 혹시나 저에 대한 만족도가 안 차도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스스로 '너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었어?' 라고 체크해 보고 싶어요. 솔로 가수로서 어떤 모습일지 이번 활동을 통해 고민이 풀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차게 말했지만 유아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다"고 털어놨다. 오마이걸 활동을 하며 솔한 평가와 결과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며 솔로 가수로 재평가 받는 순간에 의연해졌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날도 있었어요. 속상해서 울었던 날들이나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좀이 잡

쫓았는데 보여주는 게 무섭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딜레마가 원동력이 됐어요. 마음의 멍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솔로 가수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은 동력이 됐다. 오마이걸의 정순미에 동화 속 요정같은 몽환미를 더한 '숲의 아이'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 유아의 퍼포먼스 능력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보컬 실력까지 인정받는 계기였다. "숲의 아이"라는 곡으로 저를 인식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솔로 활동 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아이 키워드는 놓치고 싶지 않다"며 "아이"가 몽환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루프탑'을 '꿈의 아이'라고 생각했고, 와일드한 몽환미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오마이걸 멤버들과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활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멤버들과 함께 이뤄가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넥스트 스텝을 밟다 보면 다음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게 모험 같고 재밌어요. '이건 못 넘을 것 같았는데'라는 걸 깨고 보여주고 싶어요."

"멤버들이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구나'라고 했어요. 안무까지 보고 나서는 '너랑 찰떡이다. 네가 너무 잘할 수 있을 거 같아'라고 해줬어요. 멤버들 덕분에 힘이 생겼어요."

현재 유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향은 가수 이효리다. 걸그룹으로 데뷔해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자신을 잘 알고 표현하는 당당한 애티튜드에 반했다. "이번에 이효리 선배님이 복귀하면서 한 무대를 많이 봤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대에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인드 셋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예뻐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선배님처럼 멋진 아티스트 되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자신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전혀 다른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내 안의 다양한 모습을 꺼내 보여주는 기회였으면 한다. "앨범을 준비할 때 진짜 솔로 가수같다는 이미지를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연습하면

서 어쩌면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고 느꼈고요. 솔로로도 어색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해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이미지 변화를 보고 '재 누구야? 유아였어?'라고 놀라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뉴스스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인정 후 "이미지 실추? 받아들일 것"



배우 한소희(29)가 배우 류준열(37)과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누리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한소희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류준열과 열애를 인정했다. 류준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는 맞다"면서도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환승연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류준열과 7년간 공개 연애를 했던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헤리(29)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저질하고 구차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 드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걸레를 범한 것 같다. 그분에게도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소희에 따르면 류준열과 헤리의 결별 시기는 2023년 초다. 결별 기사가 2023년 11월에 나왔을 뿐이고, 자신은 결별 후에 만남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시기는 이미 2024년 시작이었고 그분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됐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며 구체적인 열애 시기까지 언급했다.

한소희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류준열과 헤리가 공식적으로 밝혀지 않았던 두 사람의 결별 시기를 한소희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남의 결별 시기를 남이 왜 나서서 밝히냐. 무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소희는 "결별 시기는 사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6월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서 쓴 것인데 무례하다면 삭제하겠다. 환승은 아니라는 것의 반증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

이었는데 그 또한 실례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류준열과 열애 공개 과정에서 한소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소희는 "이미지는 저보다 팬분들과 여러분들이 구축해 주신 소중한 이미지인 걸 알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이미지) 실추가 되었어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류준열은 한소희와의 열애를 인정하고 '환승연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류준열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는 "하와이 목격담을 시작으로 류준열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올라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준열이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 류준열은 결별 이후 한소희를 알게 되었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지에서 양해 없는 촬영과 목격담에 공식적인 확인보다는 사생활 존중을 부탁드린 것인데, 열애 인정을 하지 않자 어제 오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해 배우의 인권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소희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는 맞다.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사진전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포토그래퍼인 제 친구를 통해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간 것이고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인사차 들리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소희는 "과정보다 결과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 그 찰나의 과정을 놓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만하고 거만해 보이는 제 태도가 저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이미 그런 나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시 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2년 만에 휴식을 가졌더니 만나니 가 된 건지 옆에서 많은 질책을 부탁드리겠다. 이제 저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목격담이 퍼졌다. 한 일본 인플루언서는 "한국 최고의 여배우와 남배우가 호텔 수영장에서 '퐁낭퐁낭' 하고 있다"며 "최고 가십"이라고 썼다. 류준열과 한소희 출연작인 '응답하라 1988'(2015-2016) '알고있지만'(2021) 등을 태그했다. 한소희는 지난해 11월 진동생과 함께 류준열 사진전을 찾았다. SNS에 북극곰 인형을 끼안은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 류준열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로 '나는 북극곰입니다' 캠페인에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류준열이 헤리에서 한소희로 환승연애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류준열 소속사는 "사진 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 여행"이라고 밝혔다. "사생활 공간에서 나온 목격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해 부탁 드립니다"고 청했다.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보도되자 헤리는 본인 SNS에 "제발"이라고 썼다. 이후 류준열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끊었다.

한소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칼을 든 강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는 사진을 올리며 환승연애 의혹에 반박했다.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친구라는 이름하에 여지를 주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관계성을 부여하지도, 타인의 연애를 훼방하지도 않습니다"라며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소희가 헤리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 '파묘' 900만명 돌파...1000만 카운트다운



영화 '파묘'가 9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공개 24일만이다.

'파묘'는 16일 34만4955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을 추가,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넘겼다(901만3231명). 현재 추세라면 '파묘'는 돌아오는 주말에 1000만 관객을 넘길 거로 예상된다. 17일 오전 10시30분 현재 '파묘' 예매 관객수는

약 9만5000명으로 1위다. 2위는 '듀:파트2'(약 5만4000명)이다.

이 작품은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2019) 등을 만든 장재현 감독 신작이다.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해 화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이가 이 작업을 풍수사상학과 장사사 영근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네 사람이 이 묘를 파헤친 뒤 기이한 일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고은이 화림을, 이도현이 봉길을 맡았고, 최민식이 상덕을, 유해진이 영근을 연기했다.

한편 16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듀:파트2'(8만1802명·누적 151만명), 3위 '윙크'(2만1158명·누적 344만명), 4위 '가여운 것들'(9410명·누적 10만명), 5위 '브러드 이말소:셀링 인 베이커리타운'(9343명·누적 16만명) 순이었다.

## 이범수·이윤진, 14년만 파경 "이혼 조정 중"

배우 이범수(55)와 이윤진(41)이 파경을 맞았다.

16일 이범수 소속사 와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범수가 이혼 조정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MHN스포츠는 이윤진이 이범수를 상대로 지난해 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윤진은 지난해 12월19일 SNS(소셜미디어)에 "나의 첫 번째 챔터의 끝"이라며 이범수를 태그했다. 한 외국 여성 영상도 공유했다. 영상에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이윤진은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I decided to stop giving my kindness to the closest one who doesn't absolutely deserve it. All done)"고 덧붙였다. 부부는 서로 팔로우도 끊었다. 이범수는 자신



의 팔로우를 모두 삭제하고, 게시물도 지웠다.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 측에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 말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MHN스포츠는 전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다. 이윤진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이범수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